

보성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한다

별교갯벌·득량만·보성강·주암호
하나 축으로… ‘생태 도시’ 도약
핵심·완충·협력구역 지정해 관리
올해 7월 최종 신청서 제출 예정

전라남도 보성군이 ‘별교갯벌’과 ‘득량만 해역’, ‘보성강 및 주암호’를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해 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6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본격 추진한다.

22일 보성군에 따르면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가진 지역 중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곳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다.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 3대 자연보전제도 중 하나로, ‘보존’과 ‘발전’, ‘지원’을 조화롭게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 등재 추진을 위해 보성군은 군 전역을 ‘별교갯벌’, ‘득량만 해역’, ‘보성강 및 주암호’ 총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생태환경, 역사·문화, 지역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핵심구역’은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환경보전해역(해양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 법적 보호를 받는 지역으로 지정했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둘러싼 △주암호 수변구역 △친환경 농업 생산 지역(국가중요농업유산인 보성차밭 핵심지역) △내륙부 환경보전해역 등으로 설정

해 핵심 생태계를 보호하고, 친환경적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협력구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외의 지역으로 지역 사회와 기업, 주민이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보성군은 등재를 위해 철저하고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해 4월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다양한 생태·문화 유산 기반 위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문본 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현지 실사 및 보안을 완료했다.

군은 일련의 로드맵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국문 및 영문 최종 신청서를 유

네스코 본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별교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 보성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청정 보성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생태 환경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성군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별교갯벌을 보유하고 있으며, 득량만 해역과 보성강, 주암호 등 해양과 내륙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드문 사례를 제공한다. 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관리되고 있는 차밭과 같은 친환경 농업자원을 보유, 생태 관광, 지역경제, 문화유산 보호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보성=양중수 기자



순천체력인증센터 체력증진교실 25일까지 1기 참가자 선착순 모집

전라남도 순천시는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25년 순천체력인증센터 체력증진교실’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순천체력인증센터 체력증진교실은 시민들을 위해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 요가 및 스트레칭과 더불어 전문가를 통한 체력 측정을 병행 운영한다.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5월2일부터 7월25일까지 매주 3회(월·수·금) 오전 11시부터 40분간,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3층 순천체력인증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1세 이상이면 누구나 순천체력인증센터의 전문가를 통해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 순천체력인증센터는 주중 센터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오전 추가 운영도 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모집 기간 내 체력 측정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체력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체력100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체력증진교실 모집 및 자세한 센터 이용 문의는 순천체력인증센터(061-749-6448)로 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청년활동 공간 ‘미소청년’ 문 연다 광양중앙도서관

전라남도 광양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양중앙도서관 본관 3층에서 청년들의 활동 공간 ‘미소청년’ 개소식이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환 청년’을 의미하는 ‘미소청년’은 청년들의 창의 활동을 지원하고 특화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양중앙도서관은 향후 청년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로적성검사 △창업 준비 A to Z △쿠킹클래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춘예찬 토크 콘서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개소식뿐만 아니라 바리스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커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이날 ‘핸드드립 커피 내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기본적인 추출 기술을 배우고 핸드드립으로 본인만의 커피를 만들어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lib.gwangyang.go.kr>)에서 접수를 진행하거나 광양중앙도서관(061-797-3861)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김미라 광양시 도서관과장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문화·창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라며 “지역 청년들이 ‘미소청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문체부 자전거 여행 공모 고흥군, 전국 1위 선정

전라남도 고흥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됐다.

22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체류형 자전거 여행 모델을 발굴하는 정부 사업으로, 고흥이 전국 8개 지자체 중 최고점을 획득하며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국비 5000만원을 확보, 군비 50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원의 사업비로 자전거 여행상품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고흥군이 제안한 ‘블루마린·스타로드 자전거 투어’는 국내 자전거 여행지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섬, 해양, 우주 테마를 결합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다도해의 풍광을 따라 거금도·연흥도·쑥섬을 거치는 ‘블루마린 코스’와 여수엑스포역에서 출발해 팔영산과 나로우주센터로 이어지는 ‘스타로드 코스’는 경관·스토리·이동 편의성이 어우러진 독보적인 콘텐츠로 호평을 받았다.

현장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라이딩 자체도 훌륭하지만, 고흥만이 가진 우주·섬 자원과의 연계성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여행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체류형 여행상품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KTX 자전거 전용열차를 통한 수도권 연계, 자전거 동호회 대상 ‘헬린지 투어’, 지역 특산물·카페·숙소와 연계한 로컬푸드 체험 코스 등 여행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관광객 유입에 따른 소비 확대도 기대하며 지역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숙박 시설에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 기획을 진행 중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고흥군의 창의적 제안과 행정·의회의 유기적 협력, 그리고 주민과의 참여 기반이 어우러진 결과로, 앞으로의 자전거 여행이 고흥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 브랜드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연환경과 관광 자원을 연결해 고흥만의 특별한 여행상품을 전국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고흥에서만 가능한 테마형 콘텐츠로 지속 가능한 관광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장흥군 관산을 외동2구 경로당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요가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관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니어 요가 ‘호응’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요가 프로그램 ‘꽃피는 내 인생’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관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2025년 어르신 요가 지원 ‘꽃피는 내 인생’ 프로그램은 (재)장흥군 나눔북

지재단 주민공익사업 중의 하나다.

노인맞춤형 운동강사가 외동2구(수동마을), 삼산1구(산서마을) 경로당을 매주 1회 방문해 1시간씩 어르신들의 자세 교정과 혈액 순환, 인지 기능 향상을 돕는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사업이다.

관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선환 위원은 “어르신들이 오늘 유독 더 건강해

보인다. 매주 1시간의 투자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양선 관산읍장은 “어르신들이 오래도록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읍사무소에 항상 함께하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장흥군, 청년 창업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내달 9일까지 신청, 총 10회 교육과정 우수 수강생 물축제 부스 운영 기회

전라남도 장흥군은 22일부터 오는 5월9일까지 ‘2025년 청년 참여 창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역 축제 참여를 통해 창업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흥사랑기금 사업으로 추진한다.

교육은 총 10회(주 2회)구성으로 △지역자원조사 1회 △식음료 과정 3회 △체험·굿즈 과정 3회 △부스운영 과정 1회 △특강(스토리텔링) 1회 △선진지견학 1회로 진행된다.

우수 수강생에게는 올해 제1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청년존에서 판매·홍보 부스 운영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존은 지난해 물축제에서 낭만과 젊음이 가득한 특

색공간으로 많은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은 만큼 올해에도 체험 부스 운영, 편의시설 확충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의 활력과 행복이 있는 장흥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창출, 안정적 정착 및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